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유세윤·유상무·장동민

'꿈꾸는 라디오' 진행

개그맨 유세윤, 유상무, 장동민이 MBC 라디오 FM4U(91.9MHz)의 '꿈꾸는 라디오'를 오는 18일부터 진행한다고 소속사 코엔이 14일 전했다.

이들은 현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김범수에 이어 DJ로 나선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밤 10시부터 2시간동안 방송된다.

소속사는 "세 사람이 라디오 진행은 처음이지만 그동안 라디오 게스트와 토크 개그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취자들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고 전했다.



'역전의 여왕'으로 돌아온 김 남 주

“여왕 시리즈는 내꺼라 생각해”

“이 작품에 출연 안하면 샘 날 것 같았어요.” MBC 새 월화드라마 '역전의 여왕'으로 돌아온 배우 김남주는 11일 오후 강남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여왕 시리즈는 내꺼라 생각했다”며 작품에 대한 욕심을 감추지 않았다.

김남주는 “자칫하면 참여를 못할 뻔했다”며 “다른 작품에 대한 유혹도 있었지만 좀 더 참고 기다렸다. 이 작품에 꼭 출연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내조의 여왕' 시즌 2를 표방한 '역전의 여왕'은 '내조의 여왕'의 주역인 김남주와 박지은 작가가 다시 똘똘다는 점에서 제작 초기부터 화제가 됐다. '역전의 여왕'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떠났던 황태희(김남주)가 5년 후 남편의 실직으로 전 직장에 계약직 사원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한 여성의 고군분투 성공기라는 점에서 '내조의 여왕'과 닮았지만 세부적인 이야기와 캐릭터 설정은 차이가 있다.

김남주는 “새로운 작품을 할지 이걸 할지 많이 고민했지만 박지은 작가가 한번 더 일을 해보고 싶었다”며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박 작가가 쓰는 대사가 현실적이고 공감이 많이 가서 이런 작품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았어요. 못할 이유가 없는데 여기에 출연 안 하면 샘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다른 배우가 이 역할을 하는 걸 보면 어색할 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내가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러나 부담감도 있었다. 8년만의 안방극장 컴

백작 '내조의 여왕'이 지난해 시청률 30%가 넘는 인기를 끌면서 김남주는 오랫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CF스타 이미지를 떼고 배우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번 작품이 전작으로 얻은 영광을 뒤흔치기 싫을까 하는 주변의 우려는 이해할 만했다.

김남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담스럽다”며 “전작의 기준에 못 미치거나 넘쳐도 질타하실

“내조의 여왕서 얻은 인기 퇴색될까 부담도 많았지만 출연 안하면 샘 날 것 같았죠”

거 같아 선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생각 끝에 결국 나답게 연기하자고 생각했어요. '내조의 여왕'에 출연했던 배우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만큼 어제가 무겁긴 해요. 그렇지만 그만큼 중심에서 기준을 잘 잡아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보내주시는 질타는 감사하게 받겠다”며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당한 면모를 보였다.

그가 연기하는 황태희는 사회경험이 전무했던 '내조의 여왕'의 천지애와 달리 회사에서 잘 나가던 커리어우먼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남주는 “천지에처럼 무식하고 마냥 아줌마 같은 캐릭터는 아니지만 비슷한 구석도 있다”며 “전혀 다른 인물을 연기한다면 보는 분들도 의아해 할 것이다. 작가가 절묘하게 잘 썼다”고 설명했다.

자신과 캐릭터의 닮은 점을 묻는 질문에 “황태희처럼 독한 구석도 있고 천지에처럼 맹한 구석도 있다”며 “둘 다 아줌마라는 점에서 연기하기는 편하다”고 말했다.

“내조의 여왕” 대본 받았을 때도 대중이 알지 못하는 저와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제 성격이 좋진 않아요.(웃음) 반면에 순진하기도 하고 양면성이 있어요.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연기하기 어렵진 않아요.”

배우 김승우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둔 그는 “저번 작품보다 애랑 떨어져 있는 게 더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지금이 애들이랑 말이 더 잘 통하고 애들한테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한데 떨어져 있잖아요. 저 없는 사이에 훌쩍 커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저번에 촬영장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 같아요.(웃음) 나중에 애들한테 좋은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 정도 희생은 필요한 것 같아요.”

상대역인 정준호와 호흡에 대해서는 “너무 편하다”며 “현장에 오면 이 사람이 남편인 것 같다. 요즘에는 정준호씨랑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김승우씨가 더 생소하다”며 웃었다.

'역전의 여왕'은 '동이' 후속으로 18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연합뉴스



'성균관 스캔들'서 1인3역 유아인 마초 같다고요? 알고보면 부드러운 남자

“겉으로만 보면... 들어보긴 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감사하고 속스러워 따름이죠.”

배우 유아인(24)이 KBS 2TV '성균관 스캔들'의 겉으로 문재신 역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성균관 스캔들'의 '겉으로만'이라는 말을 만들어 겉으로 때문에 잠 못 드는 심경을 연일 토로하고 있다.

지방을 도는 촬영 스케줄 탓에 서울 구경을 못한 지 오래된 그가 간만에 짬을 얻어 상경한 11일 저녁 그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긴 하지만 이를 연수 못자지는 않으니깐 그나마 견딜만 해요.(웃음) 분량은 민영이가 제일 많은데 제가 재신, 겉으로, 흥백서 등 1인3역을 하다보니 현장에서 가장 분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매번 의상과 헤어스타일, 촬영장소가 다 달라지다보니 항상 옷을 갈아입거나 머리를 고치고 있어야하거든요. 탈탈한 것도 꽤

신이라 신경 쓸게 많아요. 옷을 풀면 얼마나 풀 것인가 등 고민해야하거든요.(웃음)”

“미친 말”이라는 뜻의 겉으로는 외관상 다분히 마초다. 말보다 주먹이 앞서고 터프함이 절절 묻어나는 캐릭터지만 여자 앞에만 서면 팔꿈치를 하고, 김윤식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는 면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2003년 데뷔해 영화 '하늘과 바다' '서양골동품상과자점 엔터프',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 '최강칠우' 등에 출연한 유아인은 그간 주로 곱상한 마스크에 어울리는 패셔너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어필해왔다.

실제 성격이 어떤지 묻자 그는 “다른 분들이 콧방귀를 필지라도 재신에게 있는 게 다 내 모습이다. 내게 없는 것을 하면 어색하다. 시청자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내게 없는 면이기 때문인 것”이라며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여자 앞에서 팔꿈칠하는 것이 연기할 때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원작소설은 참고만 했다. 흥내를 내려고 한다면 결국 원작 속 인물에 못 미치는 선에서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재신의 모습 중 좋아하는 모습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다.

“8년 됐다는 얘기할 때마다 창피하고 끔찍해요.(웃음) 주변에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뭐 그래도 전 굉장히 만족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건방져 보이겠지만 24살, 이제 뭔가 떨치기 위해 그간 남부러울 것 없는 커리어를 쌓아왔다고 생각해요. 매니저 말을 들었으면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빨리 인기를 얻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은 포기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연합뉴스

6년근 홍삼 활정원 活精源

아직 저녁 공복에 따뜻한 물한잔과함께 드십시오!!

1Kg: 180,000

경육고는 동의보감에 4,000여종의 처방 가운데 가장 첫번째로 수록된 제1처방으로, 양성연년약이(養性延年藥餌, 건강하고 오래 살게하는 약)에 실려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나타난 효능을 보면 [경육고]는 정(精)과 수(髓)를 채워주고 진기를 고르게 하며, 원기를 보하여 노인을 젊어지게 하고, 모든 허손증(虛損證)을 보하며 온갖 병을 낫게 한다고 합니다. 또 정신이 좋아지고 오장이 충실해지며 흰머리가 다시 검어지고 빠진이가 다시 나오며, 걸음걸이가 뛰는 말과 같이 빨라 집니다. 하루에 두세번씩 먹으면 종일토록 배고프거나 목이 마르는 일이 없습니다.

어울림 참살이 이야기

어울림 참살이에서는 이주여성들과 여러분이 함께 모여 세계적 명차 6년근 홍삼 활정원 (경육고 류)를 배워 만들어 판매하면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도록 함께 이루어 나가려 합니다.

일반교육생모집 (10주)과정 (직장인, 일반인)

- ▶경육고 학교: 4회 매월 첫째주 토요일 10:00-15:00 **월 회비: 100,000**
- ▶전통차(보이차, 말차, 녹차): 4회 매주 화요일 10:00-13:00 **1회 일반회원: 30,000**
- ▶바리스타(커피이머지): 4회 매주 금요일 10:00-15:00

☎062)676-8877 Fax, 655-7009 주소: 광주시 남구 봉선동 999-1

농협 301-0062-9920-11 사) 어울림참살이 센터
운영자: 김인숙 · 목포과학대학 사회복지교수, 어울림다문화 센터장

전남·북시군지사무집
www.party-food.co.kr

홈페이지 한글주소
파티외식산업

출장뷔페·도시락납품·위탁급식

- 회갑, 칠순·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 개업식·기념식

- ★ 시외·시내 출장전문
- ★ 체육대회·야유회
- ★ 식탁·의자 무료지원
- ★ 연회장 주차장 원비

파티외식산업

상담전화 : 광주본사 226-0085~7

- 목포지사 (061)284-1115
- 순천지사 (061)723-6003
- 전북·전주지사 (063)277-0083

아직도 **부동산** 경매하십니까?

호남최초! 부실채권전문강의

- 서울에서 전문교수 초청 -

교육원의 교육목적

- 국내최초 부실채권 실전문과과정
- 새로운 투자방법으로 돈버는 부실채권
- 안전하고 수익을 높이며 투자기간이 짧은 6개월이내 최고 재테크
- 국내유일 자산유동화채권 강의로 부자되는 법
- 개인이 소액투자로 부실채권 매입하는 방법

무료공개강좌

일시 2010년 10월 16일(토) 15시

개강일 2010년 10월 23일(토) ~12강

법인대한경매교육원 062) 226-3600
(동구 학동 891-8 금호양재식당 옆 은석빌딩3층) 017-613-1808